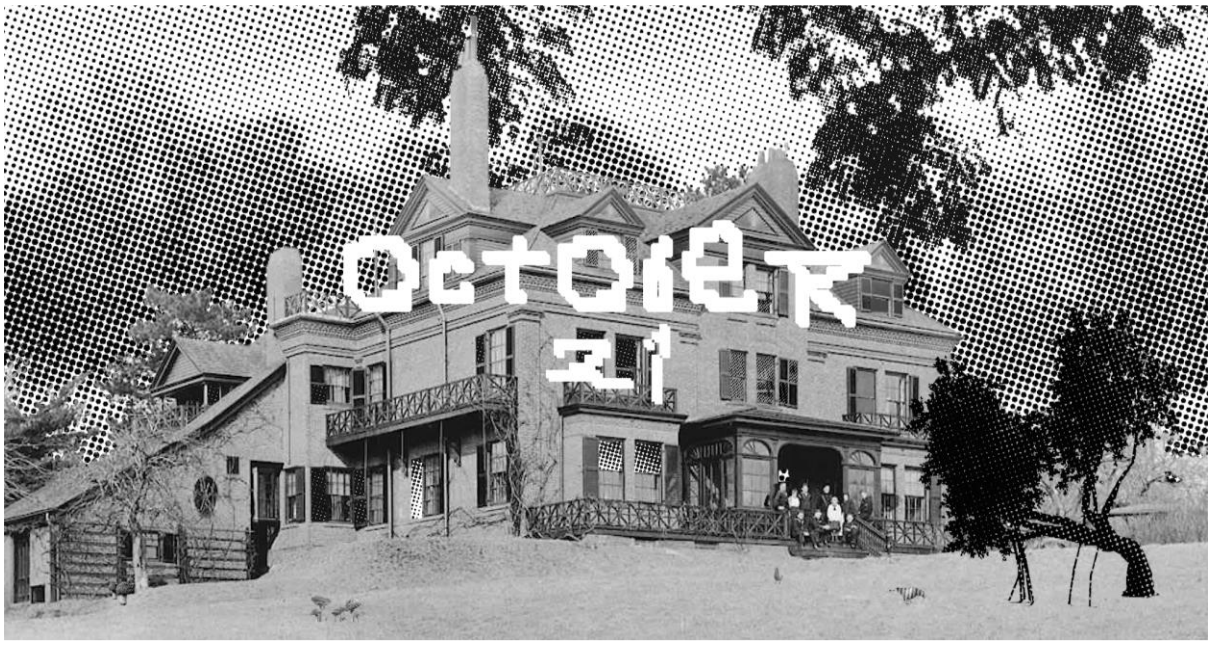
LOOP
ALT SPACE

Press Release

대안공간 루프, 2020년 루프 작가 공모 선정 작가 전시
<노영미 개인전: 지붕 위의 도로시> 개최
2020년 12월 4일(금) – 2021년 1월 17일(일) AM10:00~PM7:00
* 2020년 12월 25일(금) 크리스마스, 2021년 1월 1일(금) 신정 휴관



1021, 2020, 싱글 채널 애니메이션, 33m 55s

대안공간 루프는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노영미 개인전: 지붕 위의 도로시>를 개최한다. '2020년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에 선정된 노영미 작가는 실험애니메이션을 주 매체로 작업한다. 작가는 인터넷상의 가짜 뉴스, 언론사의 오보, 음모 이론 등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난무하는 현상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영상 내러티브를 만든다.

신작 <1021>은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월 21일'에 일어난 사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지난 100년간의 10월 21일에 발생했던 출생, 사망, 폭동, 전쟁, 재난 등과 같은 사건 사고를 연결하여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한다. 루프의 이선미 큐레이터는 <1021> 속 내러티브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출력한 후, 실처럼 잘라내어 흩뿌렸다'고 말한다.

작가는 오래되고 열화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망점'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다. 노영미 작가는 <지붕 위의 도로시DOT on the roof>가 '망점으로 열화된 이미지와 망점으로 변환한 이미지, 그리고 망점으로 불리는 이미지의 혼합'이라 소개한다. 전시는 메인작업인 <1021>을 중심으로 3개의 영상 작업과 점묘법으로 제작한 7개의 평면 작업, 인터렉티브 설치, 조각 작업으로 구성된다. 전시의 제목 <지붕 위의 도로시>는 전시 공간인 루프Loop에 찍힌 점Dot이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비슷한 발음을 가진 Roof와 Dorothy(흔히 Dorothy를 Dot으로 줄여 부름)를 조합했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관람은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Press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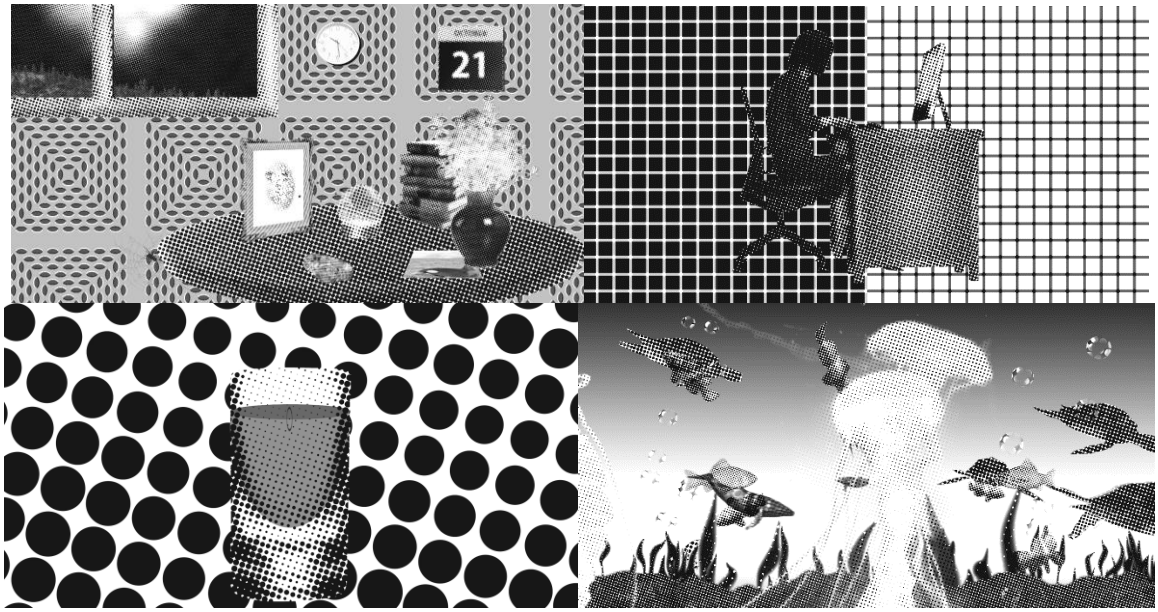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 당 관람 인원을 10명으로 한정합니다.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예약 링크: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404506/items/3697455

아티스트 소개

노영미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평면 회화, 그래픽 노블, 설치 작업 등을 해왔다.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뒤, 현재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실험 영상에 주력하고 있다. 노영미의 영상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경기도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인디포럼, EXiS, Nemaf, LOOP DISCOVER 등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와 전시를 통해 소개되어 왔다. 서울시, 부산현대미술관, 한국영상자료원, 아르코 미술관 등에 소장 및 아카이브 되었으며, '2020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에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주로 웹 상에 부유하는 레디메이드 소스를 활용하여 실험 영상을 제작하며, 다시 평면, 설치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는 'EYMR STUDIO'를 운영하며, 부산과 LA를 오가며 활동 중이다. https://youngmeeroh.tumblr.com

전시작품 소개 및 주요 이미지

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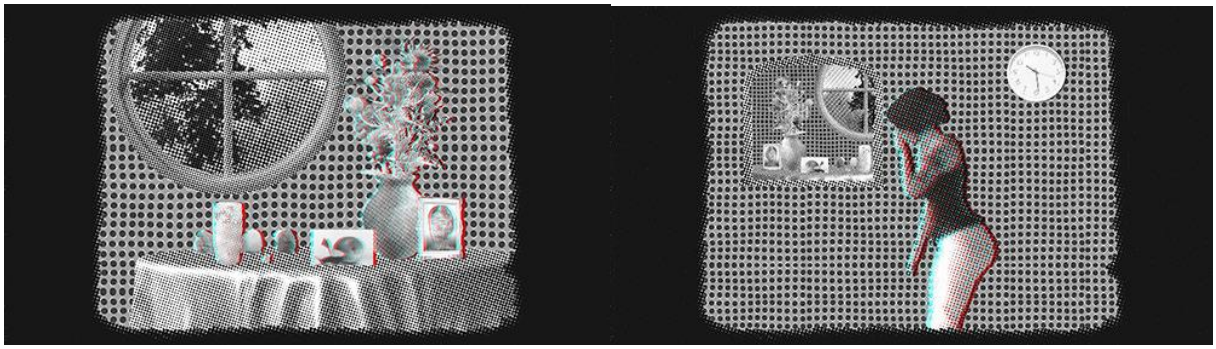
1021, 2020, 싱글 채널 애니메이션, 33m 55s

<1021>은 '10월 21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한 백 년간의 신문기사, Wikipedia, 소셜 미디어, 그리고 기타 인터넷 자료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옥토버>와 <하이마>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으나, (작법 상 하루와 일생의 관계는 일종의 자기유사성과 순환성을 속성으로 하는 프랙탈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어느 누군가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마치 멀리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점묘화처럼, 이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는 하나하나 점이 되어 역사가 지닌 비슷한 패턴을 그려낸다. 일 년 중, 어느 날짜를 선정해도 비슷한 볼륨의 비극과 희극이 존재하고, 대체적으로 소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인터넷상의 기록들은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들이

Press Release

만들어 내는, 한번쯤은 '들어 봄 직한 이야기'로 열화 된다. 이름을 감추고 등장하는 이야기와 망점으로 얼굴을 감추며 등장하는 이미지의 결합으로 만들어 내는 이 결과물로 통해, 언뜻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고단한 반복은 아닐지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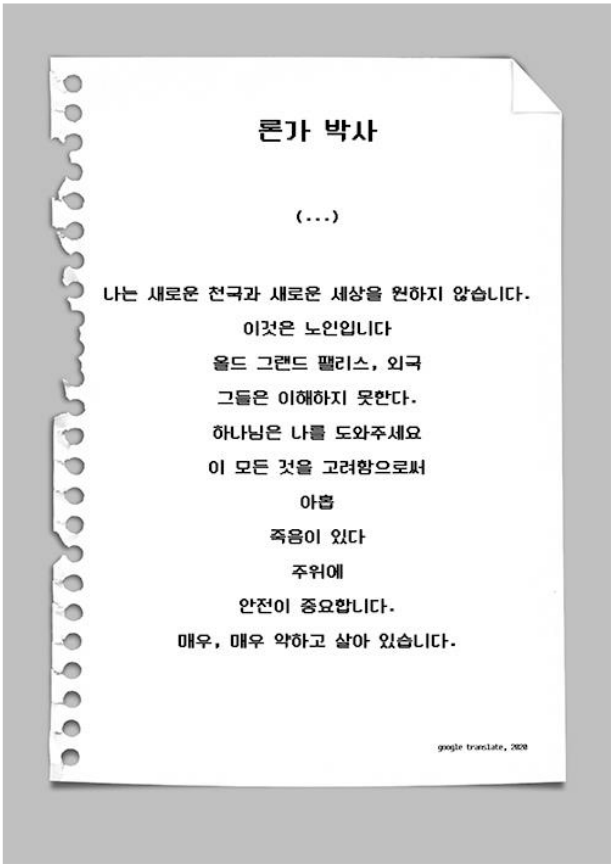
Twinkle Twinkle, Cough Cough



Twinkle Twinkle, Cough Cough, 2020, 싱글 채널 애니메이션, 1m 4s

확대된 망점으로 구성된 일종의 정물화로 점들은 반복되는 삶의 일상적인 것과 무상함을 표상하며 점멸하듯이 반짝인다. 한편 기침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 모든 것을 방해한다.

론가 박사



론가 박사, 2020, A3, 렌티큘러 액자, 29.7 x 42cm

Press Release

<1021>에 삽입된 하이마가 지은 시로, 어슐러 르 귄의 시 <ARS LUNGA>의 한 부분을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영어-히브리어-스와힐리어-마오리어-버마어-요루바어-한국어 순서로 번역한 시이다. 번역을 거쳐 열화된 시들은 원작 <ARS LUNGA> 와 동시에 제시된다.

Landscape

Landscape, 200x140cm, digital print on canvas 세부 이미지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는 풀, 개미, 거미, 지렁이, 메뚜기, 개구리, 뱀, 독수리 등 인터넷에서 수집한 각각의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붓(brushstroke)으로 설정한 뒤, 19세기 작품들의 이미지를 참조하여 점묘화의 방식으로 다시 재현했다. 각각의 이미지-점들은 모여서 원작을 지시하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냄으로써 원작을 열화 시킨다.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된 Ercole Bazicaluva의 <Landscape>를 개구리, 개미 등의 자연 이미지로 다시 그렸다.

Press Release

전시 서문

THE WEAVERS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 10월 21일 중국의 지린성 청산리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일본군과 교전하여 대승을 거둔다. 19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선 노벨상을 창설한 알프레드 노벨이 태어난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에서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하고, 2003년 10월 21일 LA에서는 거미줄처럼 얇은 목소리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엘리엇 스미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 일본의 돗토리현 중부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하고, 같은 날 초강력 태풍 하이마는 필리핀과 중국을 강타한다.

노영미는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월 21일'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 출생, 사망 등을 웹에서 수집한다. '10월 21일'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10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하나의 스토리로 재조합한다. 마치 씨실과 날실로 직조하듯 수천 개의 이야기들은 얽히고설켜 '옥토버'와 '하이마'라는 가상 인물의 바이오드라마가 된다. 스크립트화 된 이야기들은 낱장의 개별 이미지가 되고 또다시 영상의 프레임 속에서 얽혀 하나의 장편 애니메이션 <1021>이 된다. 노영미는 애니메이션 말미의 크레딧에 스스로를 대본가, 각본가 등이 아닌 Story Weaver(이야기 방직공)로 칭했다. 실제로 작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나열해 출력한 후 가위로 실처럼 잘라내어 흩뿌렸다. 그리고는 소분한 종이의 문장들을 다시 무작위로 연결해나갔다. 텍스트 콜라주는 다다이즘에서 썼던 방식을 차용했다.

실타래 같이 얽힌 데이터는 각각의 점으로 변환된다. 전작에서는 주로 디지털 콜라주로 푸티지를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오래되고 열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망점을 사용한다. 작가는 개인전 <지붕 위의 도로시DOT on the roof>를 망점으로 열화된 이미지와 망점으로 변환한 이미지, 그리고 점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이미지의 혼합으로 정의한다. 전시의 제목은 전시 공간인 루프Loop에 찍힌 점Dot이라는 뜻에서 출발해 비슷한 발음을 가진 Roof와 Dorothy(흔히 Dorothy를 Dot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를 혼용했다. 전시는 망점으로 만든 3개의 영상 작업과 점묘법으로 제작한 7개의 평면, 1개의 무빙 이미지, 인터렉티브, 오브제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의 주요 작품인 실험 애니메이션 <1021>을 중심으로 무수히 찍힌 점들은 낱낱의 데이터가 되어 익명의 일대기처럼 반복해서 열화되고 순환된다.

<파슬리 소녀>, <KIM>등 동화 혹은 원형이 되는 텍스트로 제작된 기존의 애니메이션들과 달리 신작 <1021>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작가를 포함한 Weavers의 순수 창작으로 제작된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과 같은 해피엔딩 서사에 대한 강한 반발심은 아무런 결론이 없는 '한 번쯤은 들어봄 직한 이야기' 를 만들어냈다. <1021>은 마치 오랜 세월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 온 동화가 아카이브 되는 과정을 연상케 한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고도로 콜라주된 서사는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에 대한 '이야기' 다. <론가 박사>는 <1021>에 삽입된 하이마가 지은 시로, 어슐러 르 귄Ursula Kroeber Le Guin의 시 'ARS LUNGA'의 일부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여 렌티큘러 방식으로 원작과 동시에 보여지게 제작되었다. <돌아 와 다시 만나자歸迴石*>는

Press Release

언제든 깨지기 쉬운 석질이 낮은 돌과 반짝이는 모조 다이아몬드로 만든 오브제로 자연과 영원불변의 축소판에 대한 모사품이다. (*귀회석歸迴石은 수석의 최초 어원으로 알려져 있다.) 돌, 우주, 지구, 행성 등 자기 순환적인 이미지들과 풀, 개미, 거미, 지렁이, 메뚜기, 개구리, 뱀, 독수리 등 자연 순환의 이미지를 포토샵의 브러쉬스트로크로 지정한 뒤 점을 찍듯이 그린 'Anonymous', 'Negative love with double pain' 'Landscape'등의 점묘화 7점도 선보인다.

루프에 찍힌 망점들은 100년간의 데이터 소스와 함께 영상, 평면, 입체 등으로 뒤섞인다. 주인 없는 이야기는 재조합과 재생산을 반복하며 거대한 패턴이 되어 한 편의 동화가 된다. <지붕 위의 도로시>는 인터넷 루머와 가짜 뉴스, 언론사의 오보까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진실된 정보가 경계 없이 뒤섞인 지금 시대와 닮았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변이되어 전승된 동화처럼 더 이상 진실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은 지금을 은유한다.

<1021> 속 옥토버는 천둥 번개가 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이마,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내 곧 20대의 하이마를 회상하며 '하이마, 이제 곧 세상은 끝이 날 거야' 라고 속삭인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인 '옥토버'와 '하이마'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으나, 동시에 어느 누군가의 삶이기도 하다. 작가가 수집 과정에서 발견한 대부분의 날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일 년 중 어느 날짜를 선정해도 비슷한 볼륨의 비극과 희극이 존재한다. 옥토버와 하이마가 만들어내는 망점의 세상은 언뜻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고단한 반복으로 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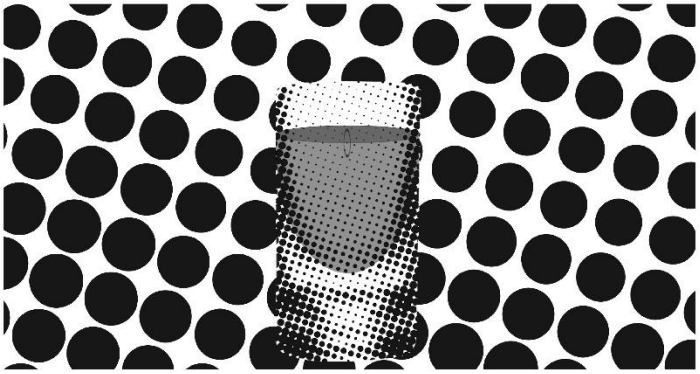
글: 이선미,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노영미 개인전: 지붕 위의 도로시
참여작가: 노영미
전시기간: 2020년 12월 4일(금) – 2021년 1월 17일(일)
* 2020년 12월 25일(금) 크리스마스, 2021년 1월 1일(금) 휴관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doh18k8yvgum71v/AAA7-wUvkVzd3_tPKID5XYi7a?dl=0
사진 설명: <노영미 개인전: 지붕 위의 도로시>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Press Release

Youngmee Roh Solo-Exhibition
DOT on the roof



노영미 개인전: 지붕 위의 도로시
2020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 선정 전시 2020년 12월 4일-2021년 1월 17일 / 12월 25일, 1월 1일 휴관
대안공간 루프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ARTS COUNCIL KOREA

LOOP
ALT SPACE

전시 메인 포스터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김다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